

광주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소폭 상향

국세청, 전년비 오피스텔 0.15% 상가 2.33% 올려 고시 광주 가장 비싼 오피스텔, 농성동 '광천프라임아너팰리스'

새해 광주지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의 기준시가가 소폭 오른다. 국세청이 기준시가 변동률을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0.15%, 상업용 건물은 2.33% 상향, 고시했다. 또 광주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구 농성동 '광천프라임아너팰리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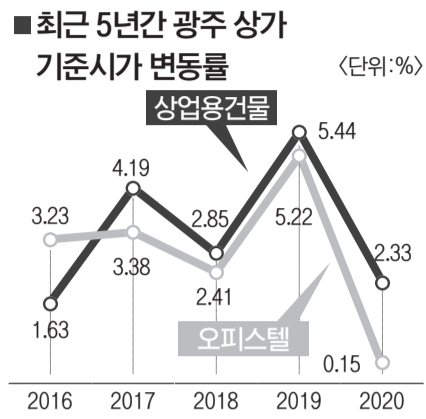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1일 고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0년 1월 1일 적용)'를 보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전국 평균 각 1.36%, 2.39% 올랐다.

광주는 0.15%, 2.33% 각각 상향됐다.

이는 2019년 변동률(오피스텔 5.22%·상업용 건물 5.44%)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3.36%), 대전(1.91%)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주와 경기(0.36%)는 변동률에 차이가 없었고, 세종(-4.14%)·대구(-2.41%)·울산(-2.22%)·인천(-2.30%)·부산(-1.33%) 등은 오히려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대구(4.25%)·서울(2.98%)·경기(2.65%)·광주(2.33%) 등에서 많이 오르고, 반면 세종(-4.06%)의 하락이 컸다.



이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과세할 때 적용된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

는다. 양도세의 경우도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를 활용, 실제 거래가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뒤 과세한다.

고시 물량의 경우 '동 수'는 전년 대비 11.8%, '호 수'는 18.7% 증가했다. 광주는 449동, 2만4121호다.

광주에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구 농성동 '광천프라임아너팰리스'다. 이 오피스텔은 1㎡당 218만원으로 3.3㎡(평)로 환산하면 720만원이다. 상업용 건물은 동구 호남동 '중장모이스토리'가 3.3㎡당 1488만원, 복합용 건물은 남구 봉선동 '더플레이브'가 3.3㎡당 604만원으로 최고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초역세·초학세·초몰세권 '화정 한양립스'

오늘부터 사흘간 청약접수

광주 초역세·초학세·초몰세권에 들어서는 '화정 한양립스'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화정동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한양건설이 시공하는 '화정 한양립스'는 광주 서구 화정동 178-74번지 일원에 총 24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단지는 수요자들의 요구가 높은 전용면적 65㎡, 76㎡, 78㎡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정동 일대는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기아자동차 1·2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 서구청·교육청 등 공공서가 밀집한 곳으로 직장인들의 수요가 높은 곳이다.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 단지는 초역세권, 초학세권, 초몰세권(쇼핑몰 인접)으로 라이프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도보로 5분거리에 광주지하철 1호

선 농성역이 자리해 초역세권 입지다. 여기에 광주중합버스터미널, 서광주IC, 무진대로, 죽봉대로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매우 좋다.

교육도시 광주에서도 인기가 높은 서석고·광덕고·광주여고 등이 가깝다. 또 광주 서초와 서석중학교가 3분 거리에 있고, 농성초·광천초·화정중·광덕중 등 교육환경이 우수해 초학세권으로 분류된다.

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이 5분 거리에 있는 등 쇼핑물 접근성이 매우 높다. 유스퀘어, 금호월드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조합 측은 이러한 장점과 함께 최근 치솟고 있는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돼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화정 한양립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청약접수를 받는다. 주택종합공은 광주시 남구 주월동 536-24번지에 마련됐다. 문의, 1899-4161.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 재건축·재개발 80가지 정보 한눈에

국토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국의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국 2000여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별 전수 조사를 했으며, 구역별 사업 추진 현황 등 다양한 정보와 통계를 이 시스템에 담았다.



지난해 광주지역 단독주택 가격이 4.49% 상승, 서울·부산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남구 백운동·양림동 일대 주택가.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정비구역과 구역별 기초정보, 추진단계, 사업계획, 조합운영현황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80여가지 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조사와 검증작업을 체계화해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신규 통계와 인포그래픽 구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중 일부 시스템을 일련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해 광주 단독주택가격 4.49% ↑...아파트값은 내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 조사 재개발 열풍에 매매수요 상승

지난해 광주지역 단독주택 가격이 4.49% 상승, 서울·부산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하락했다.

이는 광주 재개발 열풍에 따라 단독주택 매매수요는 늘어났는데 비해 기존 아파트의 거래는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광주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0.04% 올랐다. 광주 아파트

가격은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11월 0.04% 반등에 성공, 두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누계로는 0.4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단독주택가격은 크게 올랐다. 광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4.49%로, 대전 5.48%·세종 4.62%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서울(4.36%), 인천(3.81%), 경기·부산(3.83%) 등 수도권과 대도시보다 더 오른 것이다.

전남은 3.64% 올라, 전국 도단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로 인해 4년

여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1.24% 올랐다. 지난해 9월(1.84%) 이후 월간 단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며 새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대상까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의 시세변동이어서 16일 이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등의 규제 효과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연간 누적 아파트값은 서울이 1.11% 올랐고 전국은 1.4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

광주 저소득 4인 가구 월세 최대 27만4천원 지원

저소득층 주거보조 확대 전남은 23만9000원까지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광주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7만4000원까지 지급되며, 전남 4인 가구는 23만9000원까지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1760원이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광주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24만7000원에서 올해 월 27만4000원으로 2만7000원 오르고, 3인 가구는 21만3000원에서 23만6000원으로 2만3000원 상승한다. 1인 가구는 16만3000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오른다.

전남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22만원에서 올해 월 23만9000원으로 1만9000원, 3인 가구는 19만4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1만5000원 오른다. 1인 가구는 14만7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오른다. /박정욱 기자 jwpark@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p>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p> <p>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p> <p>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p>	<p>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p> <p>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p> <p>※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p> <p>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p>
---	--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